**<첨부5> 최예은 통화녹취록\_일부**

**성피연 카페 캡쳐 비교 내용 (일부)**

**1/4(수) 오후 5시 통화내용**

(윤민옥) 미리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전화가 아니라 혹시 몰라 녹음하려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최예은) 어떤 부분때문에 그런가요?

통화 내용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몰라서요.

저는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드린거거든요.

저도 대표님께서 연말에 많이 고생하신거 부분도 알고

제가 문자를 의도적으로 늦게 보낸 거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부분은 다시한번, 쩝...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네.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네에~

저도.... 어.. 저도.. 고소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서..

네네..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고. 저는 제가 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네에~

제가 어쨌든 다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어..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저랑 처음에 통화를 할때에는, 직접 대표라고 이야기를 안하시고 직접 작성하신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아닌가요?

네네. 저는 어쨌든 김시연 대표님과 계약을 한 사람이니까, 김시연대표님이 좀 난처하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바로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저도 지금 졸업한지 얼마 안되고 이걸 일반사업자로 전환한지 얼마 안되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부분이 금액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아니요. 저는 금액적인 조정 어렵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부분은 배려해 드릴 수 있어요. 협조해 주신다는 가정하에, 예를들어 분할해서 드린다는 거?

사실 저는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마음고생을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시연이라는 곳의 대표님 한테도 많이 말이 조심스러운데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정말 물리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피해가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 소통도 거의 3주간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최대한의 배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려우시다라면, 얼마나 어려우신지 모르겠지만 원하신다면 분할납부라도 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은 할 수 있어요.

얼만큼은 뭐, 제가 말씀으로 드리자면, 제가 성피연 대행을 할때 12개 글을 쓰고, 한달에 3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서부터가 잘못되었어요. 12개를 30만원에 받으면, 거기에서 써낼 수 있는 만큼의 컨텐츠를 써내야지 그게 안되니까는 지금 다른사람이 여태까지 공부하고 조사하고 몇시간 공들여 쓴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쓴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부분은 저희 직원이 정말 의도 없이 그랬게 했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친구도, 저희가 지금 이일을 한지 시작이 얼마 안되어서 그런 개념이 조금 부족했던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성피연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에게는.

네네. 압니다. 그부분은 압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경험일거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합의를 안해주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네.

앞으로 더 조심히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이고 제가 생각하는 선이에요.

좀 금액적인 부분이 더 조금 다운은 안될까요? 제가 그만둔 직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블로그 쪽도 힘들어서 직원이 그만둔거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실거면 어제 답변을 하셨었야지, 지금 이걸 가지고 며칠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더 이상 분명히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약에 힘드시다면 금액적인 부분은 분할해서 3개월에 나눠서 주신다던지, 그런 부분은 해드릴 수 있는데 어, 저는 더 이상 거기에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꼭 금적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배상을 해드려도 될까요?

다른 부분을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거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디자인물을 얼마든지 제작을 해 드릴 수 있고,

06:23 그런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06:28 지금 현재 당장 계획이 있지 않아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06:35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06:41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하기에는 머릿속에 차있는게 너무 많아서요. 정말 죄송해요. 그부분은.제가 12월에 이건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변호사님 만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캡쳐해서 다시 비교자료를 만들고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생각이상으로 여기에 진을 많이 뺐어요.

07:03 네 죄송합니다.

07:04 그래서 지금 모든 일들이 너무 많이 어긋나 있어요. 공교롭게도 가장 바쁜 12월 중순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07:23 네. 바로 그부분은 바로 결정이 어려울거라 생각하고, 그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도.. 고민을 해볼 의향이 있으시면 고민을 해 보고 연락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7:35 만약에.. 어…

07:47 아니면은 말씀하신 100만원에서 제가 50만원까지는 지금 당장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부분을 좀 그런식으로 충당을 해도 될까요?

08:00 역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저는 100만원 합의금에서 더는 변경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 진행할 디자인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계기가 되어서 다른 디자인 업무에 관련해서 일이 생길 때 제가 오히려 그부분을 메꿔드린다던지 일감을 드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08:46 아니면은 그 말씀하신 분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님 입장에서 얘가 말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디자인을 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을 좀, 종이 서약, 합의서에 작성을 하고 그런식으로 해도 안될까요?

09:10 안할까봐 그런거는 아니고요, 사실 디자인업무를 요청하는 것도 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럴 여력이 되지 않아요.

9:24 나중에라도 분명 새롭게, 대표님께서 강의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부분에서 디자인이.. 따로, 디자이너가 있으신건 아니시죠?

09:35 같이 프리랜서로 작업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외주로 진행을 하거나 같이 협업하는 디자이너는 있어요.

09:47 어쨌든 대표님도 대표님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09:54 아까 이야기한것처럼 저는 그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별개로. 별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만약이 의뢰를 해서 제가 일감을 드린다고 하면 그건 별개고 이 합의금 진행은 별개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10:20 그럼 분할은 얼마정도가 될까요? 제가 진짜로 지금 당장은 현금이 많지가 않아서, 한꺼번에는 드리기가 어려워서…

10:32 분할로 납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전에 지금 당장 50만원은 가능하시다고 했고, 나머지 50만원은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10:42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10:45 말씀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다시 제안을 드릴게요.

10:55 제가 지금 블로그 대행하고 있는게 몇 개 없어서 그걸도 제, 저도 다른 부분에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쓰고 있는 비용이 있어서 50만원은 한 2개월 내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9 50만원을 2개월 내로 주실 수 있다는게, 나머지 50만원을 이야기하는 거세요?

11:22 네네

11:23 그럼 당장 50만원….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지금 50만원 주시고, 그다음달에 20만원 주시고, 그 다음달에 30만원 주시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11:40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3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다른 뭔가 진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디자인 업무가 생기면은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11:55 네네 감사합니다.

.

**(중략)**

.

13:34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어요? 제가 따로 서약서를 안써도 될까요?

13:40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13:45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아까 저랑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사본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싸인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괜찮을까요?

14:00 네네.

14:02 그럼 우선.. 합의서.. 어… 보내주시면 제 연락처 아시니까는 …

14:12 그 전 번호로 보내면 될까요?

14:15 네. 그 이전 번호으로 보내시면 되구요. 그리고 싸인하시기 전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어 이거는 제가 의도한 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주시고.

14:24 네네.

 **(중략)**

14:47 네 그러면 언제까지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14:55 오늘은 제가 안될 것 같고, 내일까지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58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저는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속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디자인꺼리가 생기면 제가 그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15:14 금액적인 부분은 전혀 의사가 없으신거죠?

15:20 네. 더는 의사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더 못되게 굴면 못되게 군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사실 정말 어제까지도 많이 화가 나있었어요. 어떻게 답변이 없을까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금액의 근거는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뭐하고 있는거지? 그냥 추진하면 되지? 나는 그러면 뭐하고 변호사님에게 돈내고 상담을 받고 지금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지? 이런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야기한것처럼 오늘은 오히려 100만원이 안라 150만원 합의금으로 제가 해드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화통화하면서 사정말씀주시니 그래도 처음 제시했던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6:22 네. 알겠습니다

16:23 네.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